

투자하는 곳마다 들썩 ‘삼성의 힘’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를 다니다 보면 “삼성 바이오산업 인천 상륙” “삼성 바이오메디파크 확정” 등의 플래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일대에서 부동산 상품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삼성 효과’를 기대하며 내건 것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삼성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인천 송도 등 삼성그룹이 투자 계획을 내놓은 곳마다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땅값이 뛰고 미분양 아파트가 팔려나가는 등 생기가 돈다.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협력업체 입주 등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인천 송도(바이오제약 제조공장 건설), 경기도 평택시(신수종사업단지 조성), 수원시(삼성전자 공장 내 연구소 건설), 대구(삼성LED 화학공장 조성) 등지에 2020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와 평택 공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만 각 2조원이 넘는다. 이들 지역이 신바람이 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송도는 그동안 기업 유치가 잘 안 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해 초 발표된 삼성의 투자 계획이 더 반갑다.

지난해 말 평균 4억원대 초반까지 빠졌던 송도의 전용 84㎡ 아파트 값은 현재 4억5000만~5억원이다. 송도아이파크의 경우 4억2000만원 정도의 급매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3.3㎡당 100만원이 안 되던 평택시 고덕면 일대 땅값은 지난해 말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 150만원을 호가한다. 전용 84㎡형 아파트값도 2억원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뛰었다.

송도 위커힐공인 유연정 사장은 “삼성 투자를 계기로 송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

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도 잘 팔린다. 송도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와 롯데캐슬&해모로 아파트는 3월에만 40여 가구가 팔려나갔다.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도 계약률이 쑥 올랐다. 송도스마트밸리 조철진 분양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계약한

송도·평택서 각 2조 투자 계획 땅값 뛰고 미분양 팔려나가 활기

물량보다 3월 한 달간 계약한 물량이 더 많다”고 전했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분양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대구시 유천동 AK그랑플러스를 분양하는 내외주건의 정연식 상무는 “이달 초 삼성이 대구서서 LED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파트 계약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 평택 장안동에서 문을 연 코오롱하늘채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에만 3만여 명이 다녀갔다. 다음 달 수원 삼성공장 옆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신동에도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삼성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탑항공 실시간 예약서비스 실시 www.toptravel.co.kr

에티하드항공 ETIHAD AIRWAYS

www.toptravel.co.kr

맞습니다. 에티하드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던 바로 그 비행기,
지금 **탑항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 비행기, 넓은 좌석, 최고급 수준의 기내식, 전혀 새로운 기내 서비스- 국내 최초로 인천-아부다비 직항 노선을 매일 취항,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더 편리하게 연결하는 에티하드 항공! 지금 탑항공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주) 탑 항공

[탑항공 81개 지점]
본사 종로 광화문 시청 을지로 세운 종로4가 명동 남대문 강서 김포공항 우정산 목동 당산 영등포 여의도 구로 신대방 서당 교대 G마켓 양재 반포 압구정 강남 논현 선릉 대치 도곡 청담 잠실 잠실성내 문정 강변 왕십리 청구 동대문 청라리 돈암 월곡 노원 중계 수유 연신내 마포 서교 신촌 한남 용산 동부이촌 인천공항 인천 김포 부평 삼산 부천 중동 시화 안산 인양 수원 수원역 영통 오산 평택 분당 정자 분당수내 분당미금 분당서현 용인죽전 광주 이천 구리 의정부 신의정부 동두천 화정 일산 마두 정발산

해외여행 갈 땐 1688-1001 모든 여행은 탑으로 통한다! ▶ 항공권 / 패키지 / 에어텔 / 호텔 / 여행자보험

한강신도시 1년 만에 분양 “감이 좋은데”

6개 건설사 5개 블록 4800여 가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1년여 만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열렸다. 한라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5개 블록에서 48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한라건설·반도건설·대우건설은 이달 15일 동시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모아주택산업&모아건설과 경기도시공사는 다음 달 초 1632가구를 내놓는다.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는 105~126㎡(이하 전용면적) 857가구로 이뤄진 중대형 단지다. 전체의 70%가 105~106㎡형이다. 김포한강로 윤양용회사 나들목이 자동차로 5분 거리여서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반도건설이 내놓는 반도유보라2차는 1498가구의 대단지이면서 모두 59㎡로 이뤄진다. 소형이지만 4.5베어로 설계돼 조망·채광·통풍 등이 좋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1000만원 선이다. 여러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올 6월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김포한강로가 뚫리고 김포시가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건



한강신도시 분양 예정 아파트

업체	주택형 (전용면적, m)	가구수	문의
한라건설	105~125	857	1599-3737
반도건설	59	1498	1599-2900
김포도시공사*	74-84	572	1577-6841
대우건설	59	812	1577-8942
모아주택산업·모아건설*	84	1060	031-982-8787

*입주 5년 뒤부터 소유권 이전되는 임대주택. 자료:각 업체

설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분양 메모

영등포 그랑루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대성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에 소형 주거시설 그랑루(조감도)를 분양한다. 소형 오피스텔 75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47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억1000만원대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다. 02-3667-2580.

판교 대우푸르지오그랑블 단지내 상가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짓는 대우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이 단지에는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가 들어선다. 9월 개통 예정인 판교역 인근이다. 회사 측은 모든 점포의 임대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500만원. 031-8017-3000.

용산 문배동 소형 주거시설 프라이팬리스

동아건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프라이팬리스를 분양한다. 오피스텔 100실과 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이 18~28

㎡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 역세권이다. 대형마트·백화점·전자상가 등이 가까이 있다. 분양가는 1억5000만원 선. 02-790-4000.

강남구청역 인근 브라운스톤 레전드 상가

이수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브라운스톤 레전드 주상복합의 상가를 분양 중이다. 추천 업종은 세탁소·스크린골프장·금융기관·클리닉 등이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세권이다.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은 내년에 개통한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4000만원 선. 02-518-3700.

인천 구월동 소형 오피스텔 138실

이안하우징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공급면적 18~33㎡형의 네 가지 타입 138실이며 천장 높이 4.2m의 복층구조다. TV·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제품을 갖추고 옥상하늘공원·로비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들인다. 다음 달 입주 예정. 032-421-1129.

인천 청라지구 센타시아 오피스텔

서후개발은 인천시 청라지구 소형 오피스텔 센타시아를 분양하고 있다. 냉장고·세탁기·TV 등을 갖추고 준공 후부터 임대가 될 때까지 관리비를 면제해 준다. 인근에 로봁랜드와 서울대·KAIST의 공동연구단지인 BIT-PORT, 서울대병원 등이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2013년 3월 입주 예정. 1544-6300.